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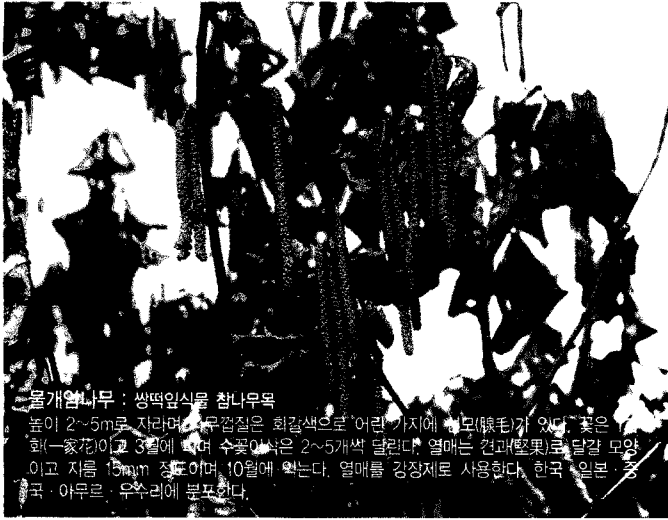


**머위꽃** :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꽃줄기가 자라고 꽃 이삭은 커다란 포로 싸여 있다. 겨울을 났고 핀다하여 관동화款冬花라고도 한다. 4월에 피며 열매는 수과로 원통형이며 길이 3.5cm이다. 잎자루는 산채(山菜)로 식용하고, 꽃 이삭은 식용 또는 진해제(御咳劑)로 사용한다. 한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지리산의 희귀야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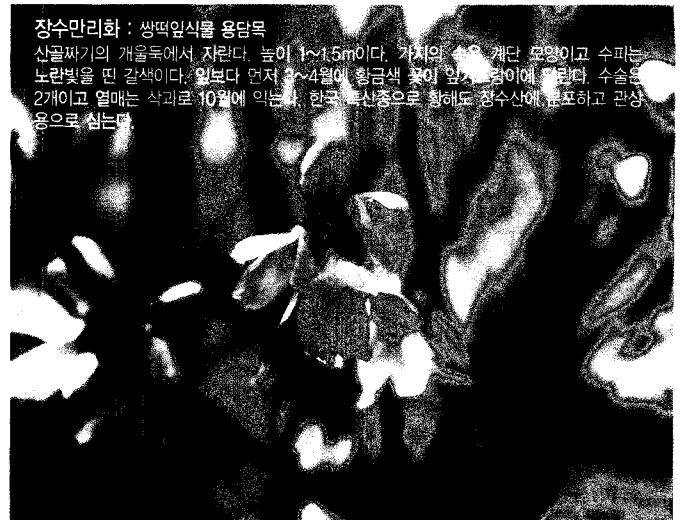


**복수초** :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미나리아재비목  
원일초 · 실려화 · 얼음새꽃이라고도 한다. 꽃은 4월 초순에 피고 노란색이며 지름 3~4cm로 원줄기와 가지 끝에 1개씩 열린다. 한방과 민간에서 진통제 · 창충 · 강심제(強心劑) · 이뇨제(利尿劑)로 사용하지만 유독성 식물이다. 꽃말은 '슬픈 추억'으로 한국 · 일본 ·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물개잎나무 : 쌍떡잎식물 참나무목**

높이 2~5m로 자라며, 나무껍질은 회갈색으로 어린 가지에 털(毛)이 있다. 꽃은 화(一家花)이고 3월에 피며 수꽃이 작은 2~5개씩 달린다. 열매는 견과(堅果)로 달걀 모양이고 지름 15mm 정도이며 10월에 익는다. 열매를 강장제로 사용한다. 한국·일본·중국·아무르·우수리에 분포한다.



**장수만리화 : 쌍떡잎식물 용담목**

산골짜기의 개울둑에서 자란다. 높이 1~1.5m이다. 가지와 줄은 껍질 모양이고 수피는 노란빛을 띤 갈색이다. 잎보다 먼저 2~4월에 황금색 꽃이 암자( 암)에 달린다. 수술은 2개이고 열매는 삭과로 10월에 익는다. 한국·북산중으로 황해도 장수산에 분포하고 관상용으로 심는다.



**풍년화 : 쌍떡잎식물 장미목**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노란색이다. 꽃잎은 4개이고 줄 모양 바소꼴이며 길이 2cm 정도로 다소 찌글찌글하다. 수술은 4개, 암술은 1개이며 암술대는 2개이다. 열매는 삭과로서 10월에 익는데, 만발한 꽃 모양을 풍년같이 보고 지은 이름이다. 중부 이남에서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산수유 : 층층나무과**

층층나무과의 낙엽교목이다. 타원형의 핵과(核果)는 처음 녹색이었다가 8~10월에 붉게 익는다. 약간의 단맛과 함께 떫고 강한 신맛이 난다. 10월 중순의 상강(霜降) 이후에 수확하는데, 육질과 씨앗을 분리하여 육질은 술과 차 및 한약의 재료로 사용한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과육을 약용하였다. 차나 술로도 장복하며, 지한(止汗)·보음(補陰) 등의 효과가 있다. 한국·중국 등이 원산으로, 한국의 중부 이남에서 심는데 전라남도 구례군 산등면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일원, 경상북도 의성군 등이 유명하다.



**앓은부채 : 외떡잎식물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

산지의 응달에서 자란다. 뿌리줄기는 짧고 곧 모양의 뿌리가 나와 사방으로 퍼지며, 줄기는 없다. 꽃은 양성화이고 3~5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불명포(佛焰苞)에 싸인 육수꽃차례를 이루며 백색이 달린다. 열매는 둥글며 모여 달리고 여름에 붉은 색으로 익는다. 잎은 나무로 먹지만, 뿌리에는 독성이 있다. 한방에서는 줄기와 잎을 구토제·진정제·이노제로 쓴다. 한국(전남·강원·경기·함남)·일본·아무르·우수리·사할린 등지에 분포한다.